

주일예배

오전 10:00

사회: 김학수목사

(*) 표시는 일어섭니다.

찬 양	한중사랑교회 찬양팀 / 다같이
*목상기도	사회자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찬송가 64장 / 다같이
대표기도	전룡수 집사
성경봉독	로마서 14장 5~9절 / 사회자
설 교	“다르게 사는 것”/ 서영희 목사
찬 양	복음송(이제 내가 살아도) /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특 송	백두산 어르신(좋은 일이 있으리라)
헌 금	찬송가 50장 / 다같이
헌금기도	서영희 목사
*찬 양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 다같이
*축 도	서영희 목사
성도의 교제	어버이선물증정 / 통지 / 새신자 환영

봉사안내

	5월 13일	5월 20일	5월 27일	6월 3일
봉사	1대3지역	1대4지역	1대5지역	1대6지역
특송	백두산	교구장	특별팀	1대4지역
사회	김학수목사	이상부장로	조황주목사	이상부장로
기도	전룡수집사	양기화집사	황화련집사	최순덕집사

수요일예배, 토요성경공부

수요일예배	찬양: 남승명 설교: 김학수 <본문 갈6:14>
토요모임	찬양: 조황주 반별성경학습
백두산모임	매주수요일 오전10시 인도: 김성 목사
주바라기모임	매주목요일 오전10시 인도: 임홍 전도사

암송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알림

◎ 하나님에 받으시는 예물

※ 무명을 제외한 주일, 감사, 침일조, 절기, 기타헌금의 명단이 주보에 기재됩니다.

■ 침일조: 강영자³, 김기택, 김덕녀, 김성남¹, 김수화, 김순선², 김순옥¹⁷, 김연월, 김영숙¹⁶, 김옥선⁸, 김용송, 김혜순¹, 김홍매³, 남림, 남승명(배혜숙), 박계홍, 박명숙⁸, 박문실, 석순옥², 유용녀, 윤수복, 이운선¹, 이정숙⁶, 이정옥³, 임홍, 전룡수, 정춘실, 정춘자¹, 조영애¹, 채영옥, 최분련, 최일², 한순금¹, 황금선¹, 황미옥, 황애자, 황채선, 무명³

■ 감사헌금: 강영숙¹, 권용(배혜숙), 권태영², 김정철, 김동철, 김봉애, 김성, 김성도², 김성숙, 김수화, 김숙화, 김순일, 김영희⁸, 김옥분⁸, 김용덕², 김용범⁴, 김의철, 김인숙², 김인숙⁹, 김재철, 김정숙¹¹, 김종식, 김창룡, 김홍매³, 남영현, 남은자, 남홍자(달원), 류련옥, 류창해, 문성열, 박복희², 박성옥³, 박성호², 박순옥⁴, 박영수², 박정혜, 서영희목사, 성순임, 소영숙, 손명도(김연화), 신규일, 엄순금, 엄상무, 원금순, 원동일, 유석기, 유석림, 유월선, 윤기현, 윤일력, 이동복², 이명섭, 이상부, 이영자¹, 이영화⁶, 이점수¹, 이종필, 이춘란², 이춘옥², 임경애, 임남순, 임복순, 장혜자, 전룡수(최순덕), 전복덕(정학), 전유림, 전홍연, 정금선¹, 정금선², 정복순², 조영애¹, 조정숙¹, 채규범(박성업), 채영금, 채영옥, 채영주, 최광춘¹, 최금자², 최명옥¹, 최성호², 최영옥¹, 최옥진, 최혜숙, 하용범, 한춘화¹, 허봉련, 허옥진, 홍철국, 황금선¹, 황보국, 황옥화

■ 선교헌금: 강은혜, 김순일, 김홍매³, 박복순⁸ ■ 구제헌금: 강송란, 최정열

■ 건축헌금: 소영옥, 왕자옥, 임정화, 임채근, 채영옥, 최혜숙

■ 후원(일반): 박정숙³ ■ 후원(약값): 김수화, 노영숙, 이옥교, 정향련

◎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간증)

“두 선생님” - 한순금 -

나에게 두 선생님이 계신다. 지금 10개월 되는 김서영 선생님과 18개월 되는 고다연 선생님이시다. 나는 어린 두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두 자식을 키운 엄마이지만 애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서영이와 다연이를 보면서 애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흔히 어린아이가 기거나 않으면 “아유 애기가 기네? 앉네? 하면서 기뻐한다. 그렇지만 애들이 기고 앉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 서영이는 앉기 위해 엉덩이를 하늘로 추켜 들고 하루에도 몇 십번씩 앉으려고 노력을 하더니 어느 날엔가는 갑자기 앉아버렸다. 그 다음엔 그 행동이 없어졌다. 다연이는 지금 한창 말을 배운다. 다연이는 말을 배우기 위해 밥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외에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의 언어로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재잘거린다. 아나달라는 말은 “엠보” 올려달라는 말은 “이루” 비닐봉투 열라는 말은 “깍깍” 하면서 어른들과 언어 소통을 한다. 사람이 온전한 말을 배워 내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다가는 문득 말이 튀어나와 하루에도 몇 마디씩 배워 낸다. 자장이 엄마가 섬그늘에는 “엄마치까” 하면서 계속 부르라고 떼쓰더니 이젠 노래 첫 구절을 알아서 자기가 먼저 부른다. 세상 사람이 서영이와 다연이처럼 노력한다면 못해 낼 일이 없을 거라고 깨달음을 받았다. 어른들은 게을러서 앞뒤를 제고 이익을 따지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쉽게 오는 현상이지만 교회에서 “성경 암송 하세요” 하면 “아휴! 난 그것 못해요. 뒷구절 읽으면 앞구절이 있어져요” 옛날 시인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뵈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되만 높다 하더라. 앞에 놓인 밭도 떠 밟지 않으면 굶어 죽는 법! 나는 크게 아멘 합니다. 노력 없이는 성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줄석연왕

지역	교구	29일	6일	지역	교구
1-01	101	7	8	2-07	21
	102	11	6		22
1-02	103	8	9	2-08	23
	104	5	3		24
1-03	105	4	3	2-09	25
	106	5	7		26
	107	8	5	2-10	27
	108	5	7		28
1-04	109	5	7	2-11	29
	110	4	7		30
1-05	111	4	2	2-12	31
	112	13	13		32
	113	7	8	2-13	33
	114	10	6		34
1-06	115	5	3	2-14	35
	116	2	4		36
	117	4	2	2-15	37
	118	1	4		38
1-07	119	7	6	3-01	39
	120	5	5		40
1-08	121	8	7	3-02	41
	122	7	7		42
	123	7	8	3-03	43
	124	2	4		44
1-09	125	11	9	3-04	45
	126	6	6		46
	127	4	7	3-05	47
	128	5	6		48
1-10	129	7	5	3-06	49
	130	4	6		50
	131	4	6	3-07	51
	132	6	6		52
1-11	133	5	4	4-01	53
	134	5	8		54
	135	6	7	4-02	55
	136	8	6		56
1-12	137	9	8	4-03	57
	138	7	7		58
1-13	139	7	7	4-04	59
1대 소계		231	232		60
2-01	201	9	12	4-05	61
	202	9	12		62
2-02	203	10	8	4-06	63
	204	11	8		64
2-03	205	7	4	4-07	65
	206	7	9		66
2-04	207	9	9	4-08	67
	208	12	10		68
2-05	209	10	8	4-09	69
	210	9	9		70
2-06	211	8	8	총계	71
	212	4	7		72
	213	2	3		73